

全學濟 科技處長官

美·加와 科學技術協定 체결合意

캐나다와 미국순방을 마치고 6월 30일 귀국한 全學濟 과기처장관은 「미국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와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순방을 통해 全장관은 앞으로 韓·加 양국간의 原電안전관리를 비롯, 핵연료개발·다목적원자로·新에너지·전자통신·정밀화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간, 연구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全장관은 韓·加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정례적인 양국 과학장관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全장관은 이밖에도 가압중수로형 핵연료관련기술 이전·原電안전기술의 이전 및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원내에 동남아시아 기술관리훈련 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기술협력을 위한 대한기술협력관을 KAIST에 상주시킨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全장관은 또 미국과는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연장, 전자통신·정밀화학·기계·원자력·에너지분야의 공동연구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全장관은 이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포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간산업계의 기술 이전과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亞·太經濟社會위원회에

權原基 科技處次官 파견

정부는 4월 22일부터 12일동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4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수석대표로 權原基 과기처차관을 파견했다.

인력자원개발의 기술적차원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일본 등 44개국으로 구성되어 각 회원국들간에 지역개발과 지역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인력개발정책을 포함, 국

제무역·공업·농업·인구문제·교통·통신·환경기술·개발도상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한편 權차관은 23일 방콕협정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것과 88년 아시아·태평양국제박람회(ASPAT) 서울개최에 대한 기초연설을 했다.

崔相勳 課長, IAEA 및 유럽 視察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방사선과 崔相勳 課長은 4월 29일 出國하여 불란서를 거쳐, 5월 1일 오지리 비엔나 IAEA 본부를 방문하였고, 5월 9~13일 서독 “칼스르” 원자력연구소 방문, 5월 14~19일 불란서 프라마툼 원자력발전소와 고지마 핵연료 재처리 공장 방문, 5월 20~25일 英國 원자력발전소 사용 핵연료저장고 및 British Nuclear Fuel Ltd.에 가서 핵연료 수송 및 재처리 공장 시찰, 5월 26~30일 스웨덴 스톡홀름, 포쉬다-크 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핵연료저장고 및 연구저장고 시찰한 후 귀국했다.

安致烈 교수, 亞·太방사선학회 조직위원장에

安致烈 경희대학교수는 오는 87년 9월에 아시아·대양주 방사선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에 최근 선임됐다.

사무총장에는 韓萬靑 서울의대교수를 선임.

放射性同位元素 등 이용기관 檢査實施

한국에너지연구소 원자력 안전센터는 6월 2일 부터 9월 30일 까지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기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수는 220개 기관으로서 이번 정기검사의 목적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 장비의 검·교정,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관계장부의 기록·비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대상기관들에게 시정·보완토록 지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는 관계기관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다. 검사반의 검사실시 계획은 다음과 같다.

定期檢查實施計劃

區分	6					7					8					9					10					備考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1	5	10	15	20	25	30	5		10	15	20
A·B組	↔					↔					↔					↔					↔								
C·D組			↔						↔						↔						↔								
技術支援組					↔									↔															
檢查結果討議 및 評價會																													
最終檢查結果報告書 作成 및 提出																													

* 검사지역: A 조(서울) B 조(경기, 인천, 강원) C 조(충남북, 경북, 대구) D 조(전남북, 경남, 부산)

高麗工業檢查(주), 새社長에 金南元專務

지난 7월 1일, 高麗工業檢查(株)는 株總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임원 개편을 결의했다.

새로운 代表理事社長에는 專務였던 金南元 씨를 선출하고 社長 李萬鎭씨, 副社長 鄭茂勇씨는 같이 代表理事會長으로 직위를 옮겼다.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회사의 基礎를 안전하게 다지는데 커다란 노력을 해 온 李社長은 活動力이 있는 專務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큰 용단을 냈으나 전과 다름없이 새로운 社長을 적극 지원하면서 會社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NDT業界의 발전을 위해 계속 獻身할 생각으로 있다.

放射線手帖發行 準備中

本協會는 放射線事業體에 종사하는 會員社 從業員 및 個人會員에게 무료서비스할 휴대용 放射線手帖을 발행 준비중에 있다.

本手帖은 국내와 海外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첩을 토대로하여 放射線取扱技術 및 그 안전관리에 필

요한 기본data와 자료를 총망라하여 수록할 것이며 會員會社의 주소와 전화번호목록도 첨부한다.

金星 MRI-CT 臨床好評

金星通信이 세계 4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핵자기공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CT)가 국내의 료기관에서 활용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7월 14일 金星通信에 따르면 이 회사의 MRI-CT가 현재 서울 信和병원, 釜山衛生병원, 江陵現代병원 등 4 개소에 설치되어 뇌종양, 뇌동맥기형 등 악성질병의 조기 진단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뇌종양, 뇌천막부종 등이 우측뇌실을 폐쇄한 경우 및 뇌간부종양, 소뇌위축증, 뇌동맥기형 등은 이제까지 X線CT로 발견이 안됐으나 국산 MRI-CT로 이들 질병이 정확하게 진단됐다고 밝히고 외국 기종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金星通信의 MRI-CT는 지난 84년 한국전자전에서 대통령상을 획득했고 美FDA, 英NRPB(방사선국)로부터 안전규격에 의한 제품임을 인정받았다.